

여수산단 재해 줄이려면 지속투자·안전교육 필요

산업안전 개선 조사 발표·토론회 입주기업 사고 방지 보완책 제시 재해 피해자 의료체계 강화 등 제안

여수국가산업단지 산업 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입주 업체·종사자 특성에 맞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수시와 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는 최근 여수 히든베이호텔에서 '여수국가산업단지 산업안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결과 발표회 및 지역안전 대토론회'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산업안전에 대한 각계각층의 소통 체계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여수산단 입주기업과 관계 기관, 시민·사회단체 100여 명이 참석했다.

여수시와 협의회는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여수국가산업단지 산업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연



여수시와 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가 여수국가산단 산업안전 개선을 위해 마련한 연구 발표회와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구 조사사업'을 벌였다. 이 사업을 통해 산단 사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입주기업들의 사고 방지와 피해 축소를

위한 보완책을 제시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여수국가산단에 입주해 있는 업체 중 석유화학업종이 차지하는 비율은 44%에 달해 산

업 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산재를 줄이기 위한 정책 제언으로는 ▲업종·종사자 간 연령 차이를 고려한 정책 수립 ▲종사자 안전에 관한 소통과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 프로그램 추진 ▲산업안전에 관한 지속적인 투자 ▲사고 예방능력·현장투입 인력에 대한 사업장 교육과 훈련 ▲산단 재해 피해자에 대한 의료능력의 강화 등이 나왔다.

이러한 지역안전 대토론회에는 최무경 전남도 의원, 이석주 여수시의원, 고용노동부 여수고용노동지청, 안전보건공단, 사회단체 관계자 등 7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여수국가산업단지 산업안전관리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여수국가산업단지는 국가 경제 성장을 주도했지만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됐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근로자, 기업 등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지리산 반달가슴곰 보호 정해진 탐방로 이용하세요 올 4마리 태어나 89마리 서식



지리산 국립공원 서식을 확인한 반달가슴곰 새끼.

지리산국립공원에 올해 4마리의 반달가슴곰 새끼가 태어나면서 국립공원공단이 곰 보호와 탐방객 안전을 위해 정해진 탐방로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30일 국립공원공단 야생생물보전원에 따르면 지리산 일대에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반달가슴곰은 모두 89마리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4마리는 올해 태어났다.

국립공원공단은 멸종 위기에 처한 반달가슴곰을 보호하기 위해 지리산국립공원 탐방객들에게 정해진 탐방로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10년간(2014~2023년) 지리산 반달가슴곰 위치 정보 3만여 건을 분석해보니, 이들 위치가 탐방로 주변 10m 이내에서 발견된 사례는 0.44% 비중을 보였다.

100m 이내는 3.1%, 1km 이내는 62.35%로, 탐방로에서 벗어날수록 곰과 마주칠 확률이 높았다.

경계심이 강한 반달가슴곰은 탐방객들이 이용하는 탐방로를 피해 깊은 산 속에 주로 서식한다.

이달 들어서는 반달가슴곰이 겨울잠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시기로 접어들었다.

6월부터 8월까지의 본격적인 짝짓기 시기로, 왕성하게 이동할 것으로 공단 측은 내다봤다. 탐방객들은 정해진 탐방로를 이용하고, 곰을 자극하는 사진·영상 촬영은 주의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탐방 때 반달가슴곰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는 급속 종 또는 방울로 사람이 존재함을 알리고 단독 산행보다는 2명 이상 산행을 하는 것이 좋다"며 "반달가슴곰을 마주했을 때는 등을 보이거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뒷걸음으로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거나, 먹을 것을 주거나 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광양시 "일과 가정 균형 있는 삶 응원합니다"

직원들 사흘간 아침 식사 제공 가족 친화 직장문화 확산 온 힘

광양시가 가족친화 직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직원들에게 사흘간 아침 식사를 나눠준다.

광양시는 31일까지 사흘간 시청과 의회 청사 입구 등에서 출근길 직원들에게 빵과 음료를 전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가족친화 행복 에(愛)너지, 생활 속에 무한 에(愛)너지'를 주제로 진행한다.

아침 출근 직원을 위한 먹거리 마련해 일과 가정에서 균형 있는 삶을 응원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사흘간 광양시는 시청과 2청사, 보건소, 사업소, 읍면동사무소 등 모든 부서를 찾아 빵과 음료를 전달 계획이다.

광양시는 지난 2015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기관 자격을 취득했다. 2020년 1차 재인증을 하고 지난해에도 2차 재 인증을 받았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매주 수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정해 정시 퇴근 문화를 만들었다.

이 밖에도 출산휴가·남녀직원 육아휴직 권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임신·출산 물품 지원 등을 통해 출산과 양육지원에 힘쓰고 있다. 전 직원 국내 문화탐방 지원,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탐방, 노부모 봉양 직원 효도 관광 등도 펼친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이번 캠페인은 우리 시 직원들의 가족 사랑, 직장 사랑 마음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활력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직원들의 복지 향상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순천시에서 진행한 2024년 코리아둘레길 남파랑길 '걷고 싶은 도시, 순천을 걷다' 참가자들이 여행을 즐기고 있다. <순천시 제공>

순천 '남파랑길' 함께 걸어요

'코리아 둘레길' 순천 구간 마냥걷기·씨워킹 2가지 진행

'2024 코리아 둘레길' 걷기의 하나로 순천에서도 '남파랑길' 걷기가 시작됐다.

순천시는 지난 25일을 시작으로 2024년 코리아 둘레길 남파랑길 '걷고 싶은 도시, 순천을 걷다'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행사는 '남파랑길 마냥걷기'와 '남파랑길 순천만 씨워킹' 2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남파랑길 걷기의 시작은 남파랑길 62코스 순천 구간 마냥걷기가 문을 열었다. 별량 화포해변에서 출발해 거차마을을 지나 구룡역에 이르

는 구간이 해당한다.

화포해변의 아름다운 바닷길을 지나 고즈넉한 시골길을 걸을 수 있다.

순천시 문화관광해설사가 동행하며 구간마다 재미있는 해설을 곁들인다.

다음 달에는 와온해변-별량화포 구간에서 '남파랑길 순천만 씨워킹'을 진행한다.

남파랑길 순천만 씨워킹 여행은 다음 달 8월과 7월13일, 9월14일, 10월12일, 11월9일 진행한다. 차수별 30명 이내 인원을 모집하며, 참가비용은 1인당 5000원이다. 코리아 둘레길 걷기는 순천시 바로예약 누리집(suncheon.go.kr/yeyak)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고흥군 민관합동 불법건축물 집중단속

6월 4~14일 2개 단속반 가동

고흥군이 6월4일부터 14일까지 민관합동 불법건축물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반 2개반 28명을 편성해 허가(신고) 건축물의 무단 증축과 무단으로 지어진 건축물 등에 대한 불법행위 등 모든 건축물이 대상이다.

지난해 상반기 사용승인을 받은 신고·허가 건축물 287건에 대해서는 무단 증축과 용도변경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생활법질서 확립과 불법 건축행위 근절을 위해 16개 읍면별 상설점검반을 편성하고 반상회의, 이장회의 등을 통해 건전한 건축문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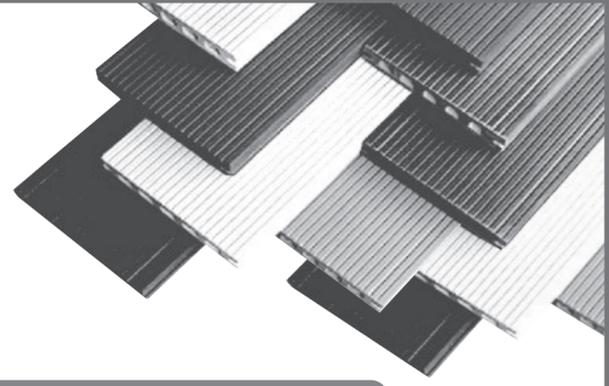
위법사항 발생시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불법건축물 철거,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시정조치를 단행한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